

“발레 배우고 온 가족 클래식 좋아하게 됐어요”

‘광주문예회관 발레교실’ 발표회장 가보니

지난 2007년 시작 수강생 2500여명 배출
바른 자세·유연성·균형감 기르는 데 효과
3개월 과정... 내년 1분기 25일부터 신청

조명이 비치는 무대에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이 흐르고 다양한 연령대의 무용수들은 연신 우아한 몸짓을 선보인다. 이들의 투수즈는 제법 알아있지만 이는 프로가 아닌 ‘초보’ 무용수들의 무대다.

지난달 찾은 ‘광주문예회관 발레교실’ 작품발표회장은 전문 무용수 못지 않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발레교실에 참여한 시민 100명은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연습한 작품을 이날 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렸다.

광주시립발레단의 단원들이 직접 강사진으로 나서는 ‘발레교실’은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00명이 넘는 수강생을 배출했고 최근 직접 발레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면서 매회 신청 때마다 ‘클릭 경쟁’이 치열하다.

유아·초·중·고급, 성인반, 가족발레반으로 나뉜 발레교실에서는 수강생들이 발레 동작을 배울 뿐 아니라 바른 자세와 유연성·균형 감각을 기르는 기본 훈련을 받았다. 가족발레반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주 2회씩 진행됐다.

무대 뒤에서 숨죽이며 제작자의 공연을 지켜본 권소영(43) 강사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발레는 일반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예술 분야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막상 발레교실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받아들여줬다”고 발레의 실용성을 언급했다.

“한발로 균형감을 기르고 몸통과 다리의 정렬을 유지하다 보면 신체 부위별로 미세 근육을 자극시켜 탄력 있는 체형을 만들 수 있어요. 성인 수강생들은 ‘흰 다리’가 교정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날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은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백조와 토끼, 꿀벌로 단장한 어린이 무용수들은 춤으로 동심의 세계를 표현했고 성인발레반은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로 ‘칼군무’를 선보였다. 물론 동작 순서를 잊거나 대형이 흐트러지는 ‘육에 티’는 여럿 있었지만 무용수와 청중 모두 웃으며 무대를 함께 만들어갔다. 관객들은 발레리나로 변신한 가족의 모습을 카메라 앵글에 담으며 응원을 보냈다.

딸 김정원(9)·원영(8)양과 무대에 선 강선미(41·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씨는 ‘호두까기 인형’ 중 ‘중국어 춤’과 뮤지컬 ‘맘마미아’로 찰떡 같은 호흡을 보여줬다. 이들은 광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의 하나인 가족발레교실 ‘발레하마’에 참여해 매주 토요일 함께 발레교육을 받고 공연을 감상하기도 했다. 간호사인 강씨는

“엄마와 함께 춤을 주고 싶다”는 딸들의 권유로 발레교실을 신청했다. “발레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이 모두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된 거예요. 발표회를 앞두고는 영화 ‘맘마미아 1·2’를 함께 봤죠. 항상 아동용 애니메이션만 보다가 온 가족이 영화와 클래식을 즐기게 된 것이 꿈만 같아요.”

27년 만에 발레 무대에 서는 이정선(50·서구 쌍촌동)씨의 감회는 남달랐다. 중학생 시절부터 시립발레단에서 활동한 그는 가정을 꾸리면서 발레를 그만둔 지 오래였다. 발레교실에 나가는 월·수요일만 기다렸다는 이씨는 사회생활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 발레교실에 고마움

을 전했다. “음악과 문학을 접목한 무용을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잊고 지냈던 예술에 대한 갈망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무용을 하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제 무대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발표회에 초대하길 잘한 것 같아요.”

연중 진행되는 문예회관 발레교실은 연령과 수준에 따라 3개월 분기별로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 1분기 신청은 문예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에서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접수한다. 유아·초·중급 9만원, 유아 고급·성인반 12만원, 가족발레 무료. 문의 062-613-82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발레교실’ 시민 수강생들이 작품발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문예회관 제공>



가족발레교실 ‘발레하마 4기’ 수업 모습.



정화용 작 ‘기억의 서식처’

융복합 콘텐츠 미래 한자리서 본다

ACC, 14~23일 ACT쇼케이스
13팀 29명 실험적 예술 다뤄

융복합 콘텐츠의 미래를 제시할 젊은 창작자들의 실험적인 도전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ACC)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 1관, 2관 및 미디어월에서 ACT쇼케이스를 선보인다. 또한 융복합 퍼포먼스와 아티스트 토크 등도 마련돼 다양한 관점에서 융복합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번 ACT 쇼케이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센터의 주요 랩과 미디어월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행사다.

‘크리에이터스 인 랩’은 국제 레지던시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작가들이 ACC 창작센터에서 상주하며 융·복합 콘텐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융복합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사운드아트, 설치미술, 인터랙션 아트 등 13팀 총 29인의 창작자들의 실험적 예술을 다룬다.

관객들은 ‘믹스드 리얼리티’(혼합현실 콘텐츠), ‘미디어 서피스’(새로운 형식 시각매체), ‘키네틱 아트’(물리적 형

상 콘텐츠), ‘인공지능 비주얼&사운드’(신경망 활용 아트 퍼포먼스) 분야의 다양한 미디어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

‘미디어월 콘텐츠 쇼케이스 4 Walls’는 영상 콘텐츠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의 작품들을 한 달간 상영한다. 공모를 통해 국내외의 165편의 지원작 중 총 9편이 선정됐으며 이 중 4편은 ACC 제작 지원작이다.

특히, 14일 오후 7시 30분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미디어월을 활용한 정자영 작가의 ‘Licht’(빛) 퍼포먼스 초연을 만날 수 있다. 영상과 무용수들이 어우러져 선보이는 융복합 퍼포먼스 공연으로, 현대사 아픔에 집중해왔던 작가가 세월호와 형제복지원에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앞서 오후 5시에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DJ와 VJ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오프닝 파티 ‘Night Fever’가 진행된다.

이색적인 신디사이저 워크숍도 개최된다. 15일 오후 2시에는 신디사이저 약기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직접 소리를 만들어보는 신디사이저 워크숍 ‘MMM(Make Me Music)’도 펼쳐진다. 오후 오후 4시 30분에는 9팀의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 자리가 예정돼 있다. 문의 062-601-4564.

／백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흐·리츠 작품 오보에 소리로 듣는다

오보에리스트 이윤정 독주회
14일 유·스퀘어 문화관

바흐, 리츠 등 작곡가의 작품을 오보에의 풍부하고 깊은 소리로 듣는다.

오보에리스트 이윤정(사진)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서울대 음대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줄리아드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윤정은 이후 예술의 전당 주최 ‘유망신예 초청 연주회’ 무대에 서고 영국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다.

지난 2005년에는 앨범 ‘오보에 프렌치 소나타스’를 발매하고 세종 목관챔버 앙상블 멤버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며 경희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바흐의 ‘오보에 소나타 G단

조 작품 1020’으로 문을 열고 리츠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콘체르토 작품 33’, 칼리보다 ‘소풍곡 작품 228’, 도라티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를 연주한다.

이번 무대는 피아니스트 위원회가 협연한다. 전석 2만원(학생 1만원). 문의 010-4301-192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악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체험’ 참가자 모집

국립남도국악원, 21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1일까지 ‘국악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특별문화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30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통 문화체험 행사에서는 진도군에 있는 국립남도국악원 숙박시설인 ‘사랑채’에 머물며 공연관람·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남도국악원 단원과 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강강술래·민요·풍물놀이 등을 배우고, 세방낙조 탐방·오봉산 해맞이 등을 체험한다. 80명 참가자를 모집하며 남도국악원 누리집(jindo.gugak.go.kr)을 통해 신청 접수한다. 문의 061-540-404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커피를 마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채널A 주말특별기획

커피야, 부탁해

유준형 김민영 체서진 이태리 길은혜 김남매 류해린 맹세창 한재우 이태운 이광선 장곡수 김동준 우정환 안운소이 김경 | 극본 서보라 이아연 연출 박수철

CHANNEL, BM CULTURES, contents200, 흥정북도, FCM 광주광역시, 카페티아모, COSTIX, WESTWOOD, Wacom, Eziart, Rakuten Viki

매주 토·일 저녁 7시 40분